

열여덟 어른 캠페인

<그룹 프로젝트> 스터디 결과

손자영 캠페이너_미디어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는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목차

CHAPTER 1. 고아 캐릭터

-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가 삶에 미친 영향
- 당사자가 경험한 차별의 말

CHAPTER 2. 미디어 공식

- 미디어 속 고아의 공식
- 고아 캐릭터 분석
- 고아의 공식이 반복되는 이유

CHAPTER.3 미디어 속 캐릭터 변화

- 당사자 관점의 접근법
- 손자영 프로젝트 <미디어 인식개선>
-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면 좋을까요

CHAPTER 1.

고아 캐릭터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꼬드겨!”*

MBC <내 딸 금사월>

자신의 아들과 만나는 '금사월'에게 물통을 던지고 폭언을 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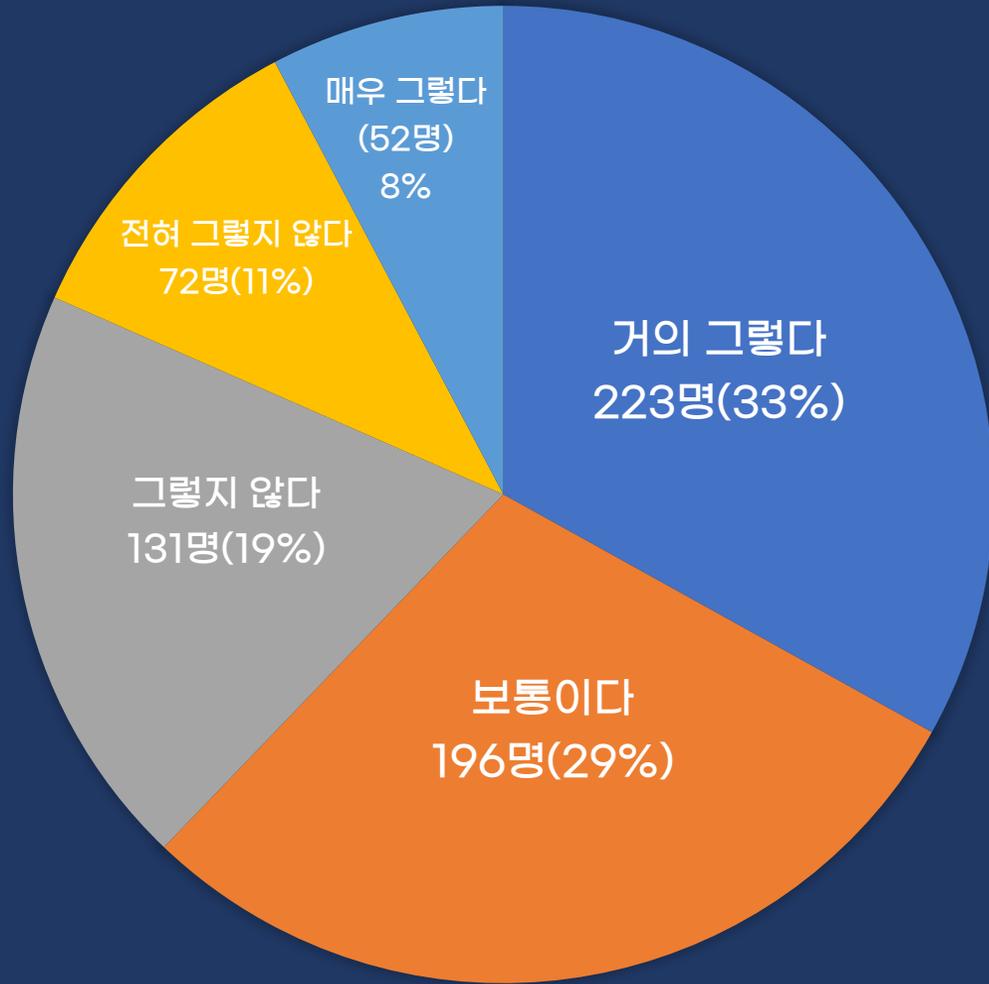


*“얼레리꿀레리 고아래요. 고아래요.
서여름은 고아래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고아니까 너랑 놀지 말라고”*

KBS <여름아 부탁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서여름'을 놀리는 장면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가 삶에 미친 영향



“ 당사자의 생각

보육원에 살았다는 걸 숨겨야 했던 이유가 미디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미디어 속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그려내더라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농담으로라도 ‘부모 없냐?’ ‘고아 새끼’라는 말들이 당사자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출처: ‘자립준비청년을 편견 없이 다룬 미디어 속 캐릭터 및 작품과 장면’ 설문조사(아름다운재단, 2022)

당사자가 경험한 차별의 말



“어쩐지 고아원에서 자란 티가 나더라”

“하여간 고아새끼처럼 그런다니까”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실제로 보육원에서 자란
당사자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어
미디어를 통해 '고아'의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CHAPTER 2.

미디어 공식

미디어 속 고아의 공식

“고아=결핍=뒤틀린 욕심과 야망”

보육원 출신은 범죄를 저지른다.

고아는 사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고아 캐릭터 분석

46개 고아 캐릭터 분석
6개 특성으로 분류

부정적 이미지

악인/악녀

범죄자/비행

욕망과 치열한 삶

탐욕/야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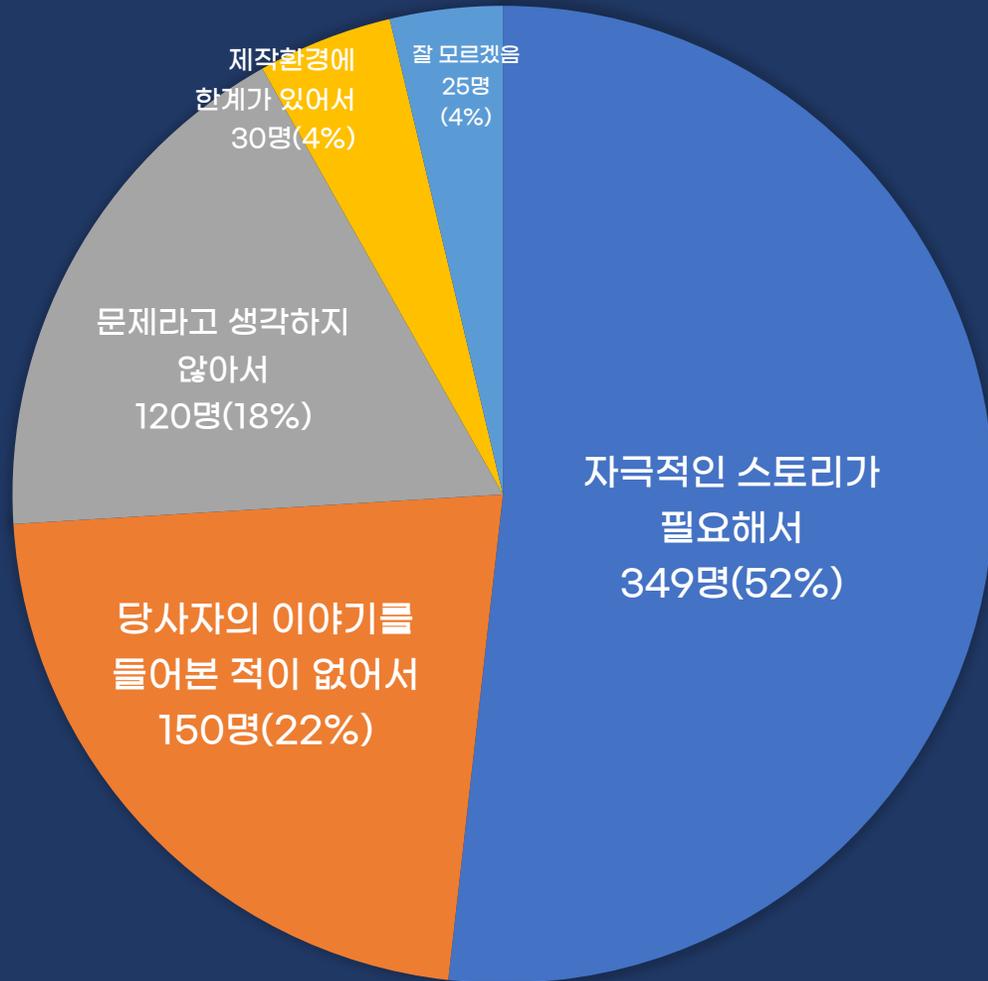
원한/복수

동정과 초긍정

신데렐라

비현실적

고아의 공식이 반복되는 이유



“

당사자의 생각

보육원 출신이어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 왜곡이나 성 인식 역시 문제 인식을 느끼고, 수정해야 나가는 것 처럼요. 미디어 제작자분들이 고아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낼지 좀 더 고민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꺼내 져야 하듯이 자립준비청년의 캐릭터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등장했으면 합니다.

❖ 출처: '자립준비청년을 편견 없이 다룬 미디어 속 캐릭터 및 작품과 장면' 설문조사(아름다운재단, 2022)

미디어 공식은 왜 반복될까요?

평론가들은 그동안 사회가 규정해 온 ‘정상가족’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고스란히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덕현 평론가는 “가족단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드라마에서 하나의 문법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시청자들로부터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을 주변을 돕고 헌신하는 선한 인물로 그린 경우는 어떨까요?

김선영 평론가는 “작품 안에서 선한 인물로 등장한다고 해도 결국 추구하는 서사가 ‘친부모를 만나서 행복을 찾는다’거나 ‘백마탄 왕자를 만나 신분상승한다’는 설정이라면 이는 역시 고아를 ‘자립하지 못하는 존재’ 또는 ‘결핍된 존재’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APTER 3. 미디어 속 캐릭터 변화

당사자 관점의 접근법

미디어 속 창작의 자유



상처받고 있는 당사자

“

이 사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야 할까요?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립준비청년이 부정적인 캐릭터로 소비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 열여덟 어른 손자영 캠페이너 -



손자영 프로젝트 <미디어 인식개선>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손자영 캠페이너는 영화·드라마에 나오는 ‘고아’ 출신 캐릭터를 분석하며 이들을 근거 없이 악인으로, 혹은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으로 그리는 일명 ‘고아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미디어가 ‘고아’ 캐릭터를 왜곡하지 않고 ‘보통의 청년’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패러디 일러스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진행기간 : 2020년 ~ 2022년
- 진행내용
 - 미디어 속 자립준비청년 캐릭터 분석 (w. 경향신문) ([클릭](#))
 -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클릭](#))
 - 청년 토론회 개최 ‘MZ가 말하는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클릭](#))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클릭](#))

차별 장면



당사자가 바뀌면 그린 그림



“드라마에 그 장면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장면일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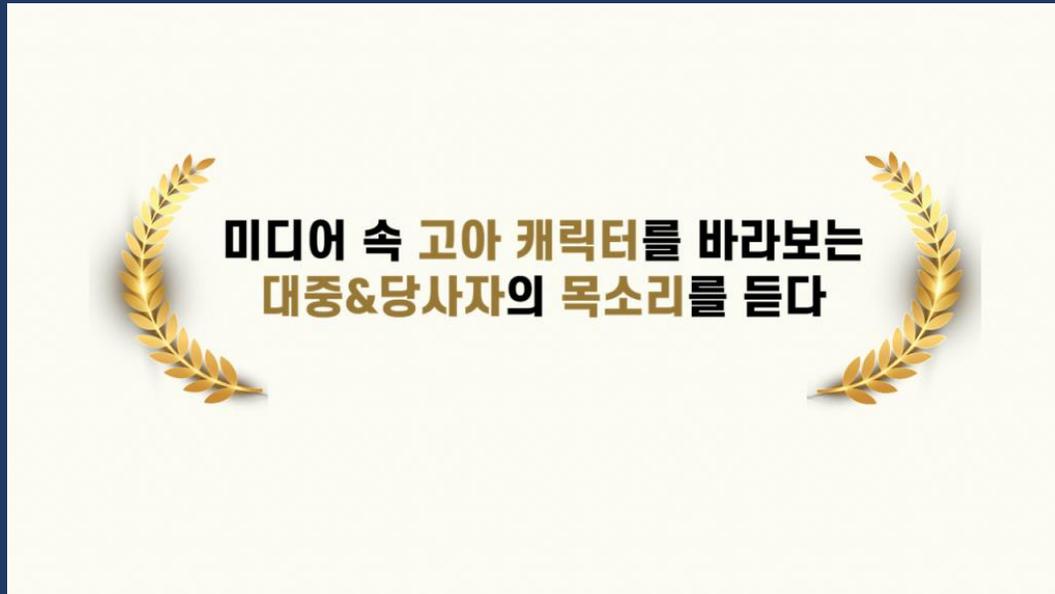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민하게 구는 사람으로 인식 될까봐 조심스럽고 걱정이 돼요.

미디어의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막연하게 동정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지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최근 드라마, 영화 속에서 열여덟 어른(자립준비청년)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는 캐릭터와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와 대중 6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캐릭터를 함께 발견,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열여덟 어른상

열여덟 어른의 '실제 삶'을 잘 그려낸 캐릭터상

🏆 좋은 어른상

열여덟 어른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준 캐릭터상

🏆 따뜻한상

열여덟 어른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한 명장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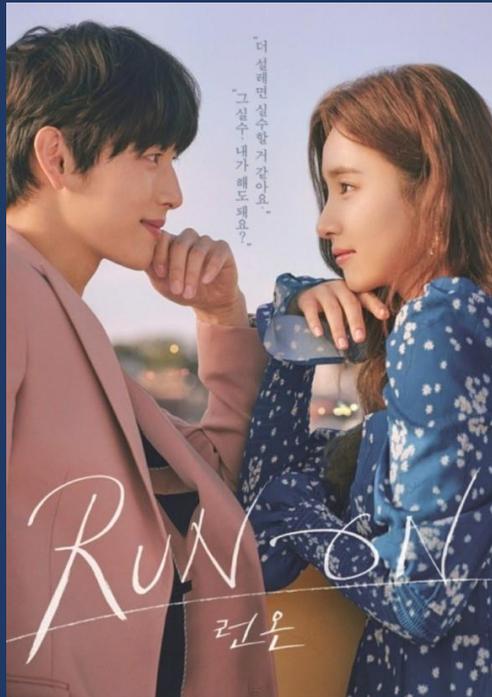
🏆 차별없상

열여덟 어른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상

미디어 캐릭터 수상작

🏆 열여덟 어른상 🏆

JTBC <런온> 오미주



<런온>의 오미주는 주체적으로 사랑과 커리어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로 그려졌습니다.

🏆 좋은 어른상 🏆

tvN <나의 아저씨> 박동훈



<나의 아저씨>의 박동훈은 지안이 과거에서 벗어나 보통의 청춘으로 살아가도록 좋은 어른이 되어 주었습니다.

🏆 차별없상 🏆

tvN <우리들의 블루스>



흘로 쌍둥이 언니 영희와 살아가는 영옥이를 주변 사람들이 영옥의 삶을 위로하며 챙겨주는 모습이 모두의 마음을 울리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 따뜻한상 🏆

tvN <나의 아저씨>



지안이 상사인 동훈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따뜻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면 좋을까요

“TV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청년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생각보다 열여덟 어른이 나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무의식의 차별이 가장 무섭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미디어를 제작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